

기획

“올 봄엔 DMZ 정원에 세계가 놀랄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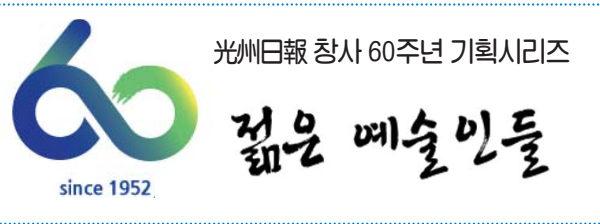
‘해우소 가는 길’



‘고요한 시간-DMZ 금지된 화원’



‘꼬리 아강’



(6) 환경 미술가 황지혜

지난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황지혜(35·광주환경미술가그룹 몸 대표)의 작업실 ‘갤러리 몸’을 찾았을 때, 방문객을 먼저 맞은 건 다섯 그루의 자작나무였다. 이파리 하나 허락하지 않는 겨울이었지만, 자작나무 짙은 ‘순백의 숲’이 풍기는 너그러움 향기를 전해 주었다. 그녀의 작업실 책상에는 마른 나뭇가지와 나뭇잎, 야생화를 캐고 옮길 때 썼을 법한 검게 때 절은 가죽 장갑 한 켤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정원’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첼시 플라워쇼에서였다. 첼시 플라워쇼는 1827년 시작돼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 18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세계 최고의 정원·원에 박람회다. 통도 크게, 그녀는 이 권위적인 행사에 한국의 전통 화장실을 들고 나왔다. 행사를 주관하는 영국왕립원예협회 “아름다운 꽃과 정원이 총출동하는 정원박람회에 화장실을 내놓느냐”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진심은 통했다. 한국의 전통 화장실이 지닌 생명의 순환과 비움의 의미를 담은 ‘해우소 가는 길’을 출품, 호평을 받았다. 그녀는 이 작품으로 첼시 플라워쇼 아티스트 부문에서 최고상(Best)을 받았다. “정원은 문화를 담은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이 매우 커요. 현재 유럽을 휩쓸고 있는 한류는 K팝과 스포츠스타 등 동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원은 매우 정적인 한류인데, 이제는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균형을 이뤄야 할 때입니다.” 요즘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국전쟁이 남긴 비무장지대(DMZ)로 가득하다. 오는 5월22~26일 런던에서 열리는 첼시 플라워쇼 소 가든 부문 전시 작품으로 그녀의 ‘고요한 시간(Quiet Time)-DMZ 금지된 화원(Forbidden Garden)’이 선정됐다. 그녀가 바라보는 DMZ는 이렇다. 우리가 전쟁과 분단의 상징으로만 알았지만 우주인이 봤을 때 지구의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DMZ라는 것이다. DMZ는 인간의 이기심이 만든 철책이지만 위대한 자연을 보호하는 독특한 공간이다. “DMZ는 우리가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전쟁과 분단이 만든 공간이지만 역설

작년 영 첼시 플라워쇼서 ‘최고상’ 한국 전통 화장실 의미 담아 호평

5월엔 ‘DMZ 금지된 화원’ 출품 “6·25 참전 용사 상처 위로할 것”

적으로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걸 정원의 언어로 다시 꾸며 놓는 게 이번 작품의 핵심입니다.” 이번 작품의 주인공은 금강초롱, 대래, 머루 등 DMZ에 자생하는 식물들이다. 또 정원의 원목 중심에 높이 7.2m짜리 경계 초소를 세우고, 군사분계선 철책과 참호도 만든다. DMZ의 초소와 철책 등이 전쟁과 폭력의 상징이라면 그녀의 작품 속에서는 아름다운 정원을 내려다보는 전망대와 생명이 자라는 텃밭의 역할을 하게 된다. 철책은 DMZ에서 자라는 덩굴식물로 꾸미고, 그 아래에는 물줄기, 그

‘황지혜’를 말해주는 세가지 키워드

- ▲어머니 정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다. 압록의 넉넉한 자연과 섬진강의 풍요로운 내 삶을 이루는 가장 큰 배경이다. 어머니는 자연을 많이 좋아했고, 마음이 힘들 때 자연을 보며 평정심을 찾곤 하셨다.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머니는 “바람을 느껴보라”고 하셨다. 나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말을 떠올리곤 한다. 자연을 보며 삶의 고단함을 견뎌낸 어머니처럼, 나 또한 자연의 품속에서 세상을 배운다. ▲눈물 내게는 커다란 노란 수건이 하나 있다. 어린 시절 속 상한 일이 있거나,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나는 그 수건을 덮고 울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큰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 수건 사이로 쏟아져내리는 햇빛은 마치 한 마리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또한 포근함을 느껴며 슬픔을 달랠 수

옆에는 기찻길이 놓여져 사람이 오가지는 못해도 강물은 여전히 남북을 관통한다는 걸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영국에는 아직도 6.25 참전용사 60명이 살고 있는데, 이중 10명이 함께 정원을 만들게 되요. 이번 작품은 일종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져요. 또 전쟁 중에 약으로 쓰인 조병아, 질경이, 진달래 등도 상징적으로 심을 생각입니다.”

DMZ의 자생식물을 영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크다. 예산도 문제지만 일부 식물은 통관 과정에서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영국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난관도 다쳤다.

“더욱 많은 우리의 고유 식물을 유럽에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죠. 이미 일부 식물은 유럽에서 종자개발을 해서 자신들이 이름을 붙여 놓은 것도 많아요. 단순히 한국의 정원만 보여주는 작업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가능성은 ‘아무것도 모른다’이다. 정식으로 조경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녀의 정원’은 텀 비어있기에 무언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공간도 넓고, 열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없으면 식은땀이 나오. 아는 게 많지 않지만 일 속에 지혜가 있고, 일이 곧 고집이고, 집념입니다. 응용력을 배우고, 진실한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도 일이지. 현장에서 시멘트도 비비고, 우박과 비를 맞으며, 또 벽에 부딪히며 배웠어요. 모든 스토리는 자연으로 풀어야 해요. 그 자연을 담긴 그릇이 바로 정원입니다.”

/글=오광복기자 kroh@·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있었다. 남들 앞에서 마음껏 울지 못할 때 그 수건을 덮고 울 수 있었다. 나는 눈물이 많다. 눈물은 사람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다.

▲나무 나무에게서 너무 큰 믿음을 배운다. 나무를 바라보면 내가 맑아지는 것 같다. 잠시나마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고상한 언어가 자연이고, 나무고, 풀이고, 꽃이다. 나무는 세상에 가장 고상한 언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고상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나무를 통해 고상함을 추구한다. 나에게서 자연의 언어가 가장 고상한 언어다.

- ▲황지혜는 •북포대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2003년 환경미술가그룹 ‘몸’ 창립 •5·18민주의 집 입구 벽화, 장상플래이트 벽화 등 다수 발표 •2011 영국 첼시 플라워쇼 아티스트 부문 최고상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U TOUR)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various countries like China, Japan, USA, Europe, and New Zealand. Includes prices and departure dates.